

# 전국소년체전 광주·전남선수단 메달 획득 순항

2일째... 광주 36·전남 38개 따내  
역도 이다은·근대3종 이루리 3관왕  
육상 최지우 400m 3연패 달성

광주·전남 선수단이 전남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본격적인 메달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제53회 전국소년체전 2일째인 26일 오후 4시 기준 광주 선수단은 금메달 13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12개 등 총 36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광주의 본격기 첫 금메달은 양궁에서 나왔다. 강수정(광주체중 2)이 대회 첫날인 25일 양궁 여자15세이하부 50m에서 330점을 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역도와 근대3종에서는 다관왕이 쏟아졌다. 이다은(광주체중 3)은 25일 역도 여U15 81kg급 인상(77kg), 용상(98kg), 합계(175kg) 모두 1위를 기록, 3관왕에 올랐다.

이루리(광주체중 2)는 근대3종 여U15에서 광주 근대3종 사상 첫 소년체전 3관왕을 달성하며 종목 최우수선수에 선정됐다. 이루리는 25일 승현서·이지아(이상 광주체중 3)·양보민(광주체중 2)과 함께 단체전에서 3351점으로 금메달을 합작했고, 개인전에서도 862점으로 두 번째 금메달을 따냈다. 이루리는 26일 승현서·이지아·양보민과 제주에서도 675점으로 1위를 차지, 세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승현서·이지아·양보민은 단체전과 제주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 2관왕을 차지했다.

에어로빅힙합 남U15 개인전

(18.700점 1위)에 출전한 이태민과 U12 3인조(18.100점 1위)에 나선 이도영·허울·박지완(이상 에어로빅힙합댄스전문스포츠클럽), 조정 여U15 싱글스컬의 노효림(3분53초55·광주체중 3), 양궁 남U15 40m(349점 1위)의 김중연(광주체중 3)도 금메달을 획득했다.

전남 선수단은 금메달 14개, 은메달 6개, 동메달 18개 등 총 38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선전하고 있다.

육상 이하은(광양백운중 2)이 25일 여U15 멀리뛰기에 출전해 5m55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 본격기 첫 금메달을 전남 선수단에 선사했다.

육상 최지우(구례여중 3)는 같은날 여U15 400m 결승에서 56초68로 금빛 질주를 펼치며 대회 3연패 쾌거를 이뤘다.

육상 여U15 김태빈(목포하당중 2)은 25일 포환던지기(13m64)와 26일 원반던지기(35m75)에서 각각 1위를 기록, 2관왕에 올랐다.

바둑의 양계봉(전남바둑중 2)·이승석·임지호(이상 전남바둑중 3)는 남U15 단체전 3연패를, 바둑의 악지우·최지운·황가환(이상 전남바둑중 3)은 여U15 단체전 3연패를 각각 달성했다. 임지호와 악지우는 각각 바둑 종목 남U15와 여U15 최우수선수로 뽑혔다.

검도 남U12 단체전의 김단우·김산휘·박희찬·선수연·손준혁·오승현과 수영 여U12 자유형 100m(1분06초39)의 임지울(여수한려초 4)·평영 100m(1분16초98)의 문승유(영암초 5), 태권도 남U12-34kg 윤서진(해제초 6)·여U15 -40kg 성유림(해제중 3), 사격 여U15 공기소총(251.9점) 송수희(여수여중 3)도 금메달을 차지했다. 최동한 기자 cdstone@jnilbo.com



전남바둑중 선수들이 26일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바둑 남U15 단체전과 여U15 단체전 동반 금메달을 획득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근대3종 여U15 3관왕 광주체중 이루리(2년). 광주근대3종연맹 제공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여U15 81kg급 3관왕 광주체중 이다은(3년). 광주체중 제공



한국 여자 양궁 국가대표팀 남수현(순천시청)이 26일 경북 예천진호국제양궁장에서 열린 중국과 2024 현대 양궁 월드컵 2차 대회 리커브 여자 단체전 결승에 임하고 있다. 세계양궁연맹 제공

## “아! 엑스텐!” 한국 여자 양궁, 월드컵 연속 은메달에 그쳤다

### 중국에 슛오프 끝 패배

순천시청 양궁팀 남수현과 임시현(한국체대), 전현영(인천광역시청)으로 구성된 한국 여자 양궁 국가대표팀이 안방에서 열린 ‘2024 현대 양궁 월드컵 2차 대회’에서도 금메달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국 여자 양궁 국가대표팀은 26일 경북 예천진호국제양궁장에서 열린 중국과 이번 대회 리커브 여자 단체전 결승에서 슛오프까지 가 4-5(54-54, 55-55, 56-54, 52-56, 29-29)로 역전패했다.

한국은 16강에서 말레이시아를 6-0(57-53, 59-51, 58-52)으로 완파한 뒤 8강에서 이탈리아에 5-3(57-57, 54-55, 56-50, 54-49)으로 역전승을 거뒀다. 이어 준결승에서 인도네시아를 5-3(58-

57, 56-58, 57-54, 55-55)으로 꺾었다. 한국은 중국과 결승에서 1세트를 54-54, 2세트를 55-55로 비기며 균형을 유지한 뒤 3세트에서 56-54로 승리하며 세트스코어 4-2 우위를 점했다. 하지만 4세트를 52-56으로 내주며 다시 세트스코어가 4-4 동점이 됐다.

이어진 슛오프에서 한국은 임시현이 9점, 남수현과 전현영이 10점을 쏘며 중국과 29-29로 동일한 점수를 기록했으나 리커브에서 과녁 중앙에 더 가까운 X10(엑스텐)을 쏘며 금메달을 놓쳤다.

지난달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1차 대회에서도 은메달을 차지했던 한국 여자 양궁 국가대표팀은 다음 달 18일부터 23일까지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리는 3차 월드컵에서 설욕을 노린다. 한규빈 기자

## ‘홈런으로만 득점’ KIA, 두산 꺾고 선두 지켰다

### 5-2 승... 6할 승률 사수

KIA타이거즈가 두산베어스와 홈 주말 3연전에서 우위를 점하며 단독 선두를 수성했다. 4연패에 빠지며 6할 승률이 무너질 뻔한 위기에서 공수주 모두 집중력을 발휘하며 연승으로 분위기를 반전하며 이뤄낸 성과였다.

KIA는 26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두산과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시즌 9차전에서 5-2로 이겼다. 앞서 24일 7차전에서 5-7 패배, 25일 8차전에서 6-2 승리로 균형을 이뤘던 KIA는 이날 승리로 위닝 시리즈를 챙겼다.

위닝 시리즈를 챙긴 KIA는 올 시즌 31승 1무 20패로 단독 선두를 지켰다.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4연패에 빠지며 0.592까지 무너졌던 승률을 0.608까지 끌어올렸고, 삭제됐던 승차도 다시 2경기로 벌렸다.

타선의 집중력이 돋보인 경기였다. 나성범과 최형우의 백투백 홈런을 시작으로 박찬호까지 세 차례 대포로만 모든 점수를 뽑아내며 라이브 피칭과 퓨처스리그 등판 없이 부상 복귀전을 치른 라울 알칸타라를 흔들었다.

KIA는 0-0으로 맞선 1회말 1사 후 김



KIA타이거즈 최형우. KIA타이거즈 제공

도영이 몸에 맞는 볼로 출루한 뒤 나성범이 알칸타라의 4구째 135km 포크볼을 공략해 우월 홈런을 쏘며 앞섰다. 이어 후속 타자 최형우가 알칸타라의 6구째 135km 포크볼을 때려 백투백 홈런을 터트리며 3-0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KIA의 홈런 퍼레이드는 2회말에도 이어졌다. 선두타자 한준수가 볼넷을 골라 출루한 뒤 최원준이 좌익수 플라이로 물리났으나 박찬호가 알칸타라의 2구째 145km 직구를 받아쳐 비거리 110m의 좌월 홈런을 쏘며 5-0 리드를 잡았다.

홈런 세 방으로만 5점을 뽑아내며 자신

감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이었다. KIA는 우천 취소 등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다음 달 7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다시 알칸타라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확실한 수확을 거뒀다.

KIA 투수진도 탄탄하게 마운드를 구축하며 위닝 시리즈 확보에 힘을 보탤다. 선발 등판한 제임스 네일은 6이닝 동안 3피안타 3사사구 6탈삼진으로 1실점만 내주는 위력투로 시즌 6승째를 챙겼다.

이어 최지민이 7회말을 퍼펙트로 막은 뒤 좌투수 김태현이 8회말 선두타자 김대환을 볼넷 출루 시켰으나 정수빈의 직선타에 주자를 처리하는 등 노히트로 막았고 장현식이 9회말 2사 후 양석환에게 2루타, 김재환에게 적시타를 내주며 추격점을 내준 뒤 정해영이 등판해 원아웃 세이브를 챙기며 승리를 지켰다.

이범호 감독은 경기 후 “타자들이 초반부터 끈질긴 승부를 펼치며 좋은 공격력을 보여줬다”며 “나성범과 최형우의 연속 타자 홈런으로 분위기를 좋은 쪽으로 가져왔고 박찬호의 홈런도 팀 승리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일이 주 2회 등판이었지만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투구 수 관리를 잘했다”며 “82구로 6이닝 투구를 한 부분이 돋보였다. 정해영도 3연투에도 불구하고 팀 승리를 든든히 지켜줬다”고 덧붙였다.

한규빈 기자